

섭리의 대안학교.

작성일 : 2010. 12. 08 (수) 새벽 1:40

작성자 : 주은혜 (부산 주 향기로운 교회)

* 예수님 말씀 *

섭리의 대안학교는

영적인 학교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점 크게 하면 되니

교육 목표 자체를 먼저는 영이요,

이후에 육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라.

신앙학교로 키우는 것이다.

영적인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육적인 것은 금방이요,

공부 또한 쉬울 것이니

먼저는 영적으로 튼튼한 자들을 뽑아서

기도하는 학교, 영성이 뛰어난 학교로 만들고

그로인해 육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만들도록 하라.

학생을 뽑을 때 영, 육으로 모두 보고

신앙의 엘리트들을 뽑아야 한다.

교사진 또한 영, 육으로 보고

인격, 성품, 생각, 사상,

틈이 없는 자들을 뽑아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 완전하게 시작해야

나중에 크게 될 때 그 기준으로 더욱 성장되게 될 것이니
작지만 부족함 없이 준비하도록 하라.

대안학교 학생들,
세상에 나가도 부족함 없는 똑똑한 자들로 키워야 한다.
먼저는 영이지만
영만을 치우쳐서 가르치면 안 되고
육적인 것들도 가르치며
영, 육으로 섭리의 엘리트를 키워내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

섭리사 지도자를 키우는 학교가 되고,
세상에서 큰 자들을 키우는 학교가 되어야 하니
진정 기도로 짓는 학교가 되어라.
세상의 유명한 학교들도
기독교학교로 시작한 곳들이 많다.
그 학교들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는 곳들이었기에
성장하여 내로라하는 학교가 되었고
세상에서 엘리트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된 것이다.

너희들도 나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고,
선생의 교육 말씀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니
기도로써 나에게 간구하고
선생과 의논하며, 나와 의논함으로
더욱 완전한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하라.
꼭 필요한 공부는 하게 하되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립성과,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고
그것을 신앙에도 접목시켜서
어리지만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1:1 신앙을 하도록 키워내라.

학업도, 신앙도 그리 할 수 있는 자는
결국 신앙의 엘리트요,
세상에 나가서도 휩쓸리지 않을 자이니
내가 세상의 엘리트로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섭리사 어린 자들 중에
내가 키우는 똑똑한 자들 많으니
그들을 찾아서 신앙도 깊이 살펴보고
성향도 깊이 살펴보아서 뽑고 또 뽑아라.

선생관, 역사관, 정확히 교육하도록 하고,
이것을 하나의 교과과정으로 만들어
신학교 수업하듯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하라.
매주 전체 예배 또한 따로 학교에서 드려서
학교를 성전화하고
그들 통해 신앙학교로서 성장시켜라.

후에는 너희가 만든 학교가
전도의 발판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대안학교가
부족함 없이 준비되어야 한다.
성삼위를 붙잡고 하라.
성삼위와 함께하면 더욱 잘 될 것이다.

간구하고 외치며
한마음과, 한목소리로 행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내가 함께하니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이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삼위께 맡기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행하자.
사랑한다.
너희들의 수고를 알고,
너희들의 행함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